

한글대장경 전산화 된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빠르면 상반기 개원
 역경 오역등 해결 '기대'...2006년 CD로 발간

올 연말 완역을 앞두고 있는 동국대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이 전산화되어 사이버 무대에 나서게 된다.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해 온 '전자불전연구소'를 빠르면 상반기중 개원, <한글대장경> 2백80여권과 <한국불교전서> 전 12책(册)/동국대출판부 발행)을 전산화 한다. 이번 전자불전연구소의 개원으로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는 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함께 불전 세계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는 30여년 걸친 역경불사에서 나타난 오역이나 문법, 문체상의 문제점들이 전산화 기술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3년 불전전산화의 세계적 권위자인 램카스터교수(미국 UC버클리)를 초청, 불전 전자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불전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온 동국대는 인접학문분야의 기술과 지원을 통해 자체역량으로 전자불전연구소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전자불전연구소는 불교학부와 어문학부, 정보산업학부 교수진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자불전연구소와 함께 설립인가를 받은 전자불전연구소가 기술적인 지원하게 된다.

전자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온 한 관계자는 "대장경의 전산화는 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시구에서 불교학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시장에서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길은 대장경의 전산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8면>

전자불전연구소는 오는 2006년 동국대 개교 1백주년에 맞추어 <한글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를 CD로 발간하는 것을 첫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엔진 개발 및 대장경의 색인화 작업과 <한글대장경>의 영화화 작업을 설정하는 등, 대장경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예수부대' 발언 규탄... 선도종 해명사령관의 '예수부대' 발언과 관련, 중앙승가대 학인 2백여명은 3월24일 서울용산 국방부 앞에서 군내 종교관련 규탄법회를 열어 해명사령관의 발언을 촉구했다. 중앙승가대 학생회(회장 문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휘관의 특권종교 편향은 군내 반목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장관의 참회 △해명사령관의 즉각 파면 △군중총련의 처벌 조항 제정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일본내 한국문화재 조사... 한일 불교문화 교류협... 일일 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범종)는 20일 삼일사회를 열고 올 중점 사업으로 일본내 각 종단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불경, 불상, 탑, 부도, 경전, 미술품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문화재 전문가와 협의회 임원이 참석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또 공적종교인 사후추장에 신종사주지 도후스님을 선임했다.

사람만 보면 보시를 한다. 아파트 단지내 주민, 버스 택시기사를 만나면 불사를 권한다. 군부대, 산골마을과 대불전 등 신령단체는 말할 것도 없다. 승용차에는 항상 법보시용으로 준비한 불사를 가득 싣고 다니며 심지어는 길을 걸으면서도 핸드백에서 포켓용 불사를 꺼내 보시한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법보시보살'.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안대지영보살(63)의 얘기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안보살은 10여년전부터 불사를 구입, 부처님의 법음이 닿지 않는 곳만 찾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특히 서구 양동시장 상인들은 안보살이 보시한 불사를 한 두권쯤은 갖고 있을 정도다.

"수승한 불법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어서 법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법보시용 불사가 곁에 없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집안가득 불서를 쌓아 놓고 사는 안보살의 법보시 예찬론이다. 법보시를 불사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은 1주일을 넘지 않는다. 마음을 밝혀줄 불사들이 방구석에서 나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짐을 설치기 때문

이다. 주머니 법보시용 불사가 도착하면 곧바로 배달(?)된다.

카툰 가정생활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할애 법보시 활동에 적극적인 안보살. 광주지역에는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 있다. 2천여 시장사람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양동시장. 어렵사리 개척한 곳이어서인지 그려진 특별구역이다. 서민들의 풋풋한 정과 포구의 보람을 한껏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시장을 법보시불사를 특별히 준비할 정도. 업종에 맞는 불사를 권하기 위해서다. 정육점 등 육류를 주업으로하는 곳은 합회관련불사를, 그밖의 상인들에게는 <49재영험록> <부모은중경> <삼생과 인과>등을 보시한다.

안보살은 요즘들어 신바람이 날때가 자주 있다. "한권 더 구할 수 없을가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올해 대인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안보살은 "부처님께서 복밭을 가꾸는 기회를 쥐서 고맙다"며 "두더리가 성할 때 한결음이 아니라 더 뛰어들어야 하는데..."라며 발길을 재촉했다. <김중근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어 http://www.buddhapia.com

현대불교 → LG '채널아이'
불교정보 독점제공 계약

현대불교신문사에 게재되는 주요 기사와 그동안 현대 불교신문사가 개발 축적해온 각종 불교정보 및 자료가 4월부터 인터넷 PC통신망 '채널아이'(Chanel-i)를 통해 일반에 제공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지난 3월26일 인터넷 PC통신 전문업체인 LG인터넷과 불교정보의 독점제공 및 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 불교계 최초로 신문-인터넷-PC통신을 묶는 3원형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통신망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채널아이'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의 주요기사 검색 및 각종 불교 정보를 4월 중순부터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채널아이'에 개설되는 불교정보는 △참여마당 △정보마당 △법문마당 △사이프스레 △공공자랑 등 총 12종의 메뉴로 구분해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3년째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불교데이터 베이스 '부다피어'는 종전 방식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용문의: LG인터넷 고객센터
 080-50-01434 / (02)369-9900
 현대불교 전략정보팀 (02)732-1520

불교문화 체험기행

4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온화한 미소로 정령이 나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1호)과 단아하면서도 기품있는 대웅전(국보 제49호)으로 유명한 수덕사, 겹벚꽃이 만개한 개심사를 찾아 갑니다. 이 답답한 시절에 마음을 활짝 열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사한 계절에 온화하고 따스로운 백제인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백제인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수덕사,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출발: 4월12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비: 3만5천원(참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조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회)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조여행사

11대 종회 해산 위기

조계종 131회 종회 유회후 의장단 밝혀
 의원 45명 해산 서명

25일 개회된 조계종 131회 임시종회(의장 설정)가 성원미달로 유회된 가운데 의장단이 제11대 종회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종회의장 설정스님과 부의장 청화, 법등스님을 의장단은 26일 종회가 유회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종회 종진 의원스님들, 상임분과위원장과 제11대 종회 해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스님은 "종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를 거듭하는 것과 관련 의장단의 책임을 자각한다"며 "종회의원들의 사명감 결여와 임법기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종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26일 종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자 일부 의원스님들이 지난해 128회 종회에서 종회해산 동의서명을 받는데 이어 다시 서명 작업을 한 것도 의장단의 '결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까지 종회해산에 동의서명한 종회의원은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의장단은 빠른 시일내에 의장단과 종진위원과 상임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해산문제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장단은 이에 앞서 임시종회를 다시 소집, 종회의 유지와 해산을 둘러싼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개혁종단 정통성 부정 좌시않겠다"

조계종 총무원 담화문 발표했다.

총무원은 20일자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총무원은 앞으로 개혁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징벌을 집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황진경 스님 등 5명이 95년 제기한 '승월주 총무원장 선출 무효확인소송'과 '승월주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2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담화문을

부처님의 지례로 국난극복을!!! 불자들의 원력으로 국민화합을!!!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범종단 차원의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해서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공동법회로 열리는 이 법회는 여덟 가지 법회이다. 당면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원으로 실시됩니다.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신종사 법회를 시작으로 동체대비 구원·지역화합 기원 등으로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종단의 지도자들이 각 법회마다 불석, 부처님의 가르침과 간절한 호국의 방편으로 나라가 경제적인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회를 봉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어려움을 치한 국가 기업 가계의 고통을 하루 속히 극복할 수 있는 불교적 대안을 제시할 것 입니다.

- 주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관: 조계종(신홍사 수덕사)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송지종 법문종
- 후원: 국민회의 연동회, 자민련 불자회, 한나라당 불자회, 군순단, 경순단,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02-732-4885), 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

행사일정

- 4월 5일(일) 오후2시 조계종-신홍사(강원 속초) 국민화합 기원
- 5월 25일(월) 오후9시~회향법요식 5월 26일(화) 오전 11시 조계종 수덕사(충남 예산) 파사현정 실천 참회대법회
- 7월 1일(수) 오후1시 관음종 삼교전(충남 아산) 대참회 영산대재
- 7월 4일(토) 오후9시~회향법요식 7월 5일(일) 오전11시 천태종 권문사(서울) 동체대비 구원 참회대법회
- 9월 22일(화) 오후9시~회향법요식 9월 23일(수) 송지종 정각사(부산) 동체대비
- 10월 15일(목)~회향법요식 10월 16일(금) 오전11시 진각종 흥인원(서울) 민족통일 발원 참회대법회
- 11월 15일(일) 오후9시~회향법요식 11월 16일(월) 오후2시 태고종 산암사(전남 송주) 대참회 관음예문 연비
- 11월 27일(화) 오후9시~회향법요식 11월 28일(토) 오후2시 법문종 보현정사(전남 목포) 지역화합기원 3천배

전국 순회 제1차, 국민화합기원

- 일시: 1998(불기2542)년 4월 5일(일요일) 오후2시
- 장소: 강원도 신홍사
- 1부 법요식: 통일대법당
- 2부 국민화합식: 통일대법당에서 약 150m 전방
- *행사 당일 단체 참가 차량은 입장료외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신종사 법회 동참안내

- 조계종총무원은 언론사와 불교단체장들을 위해 당일 오전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제공합니다. 문의: 02-732-4885
- 불교방송은 당일 오전7시 마포 불교방송국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제공합니다. 문의: 02)705-5301~7
- 현대불교신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스님)의 협정으로 당일 오전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마련하고, 평에거자 및 우수복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22-4162

신홍사·불기 2542년 4월 5일(일) 오후 2시